

석공은 무슨 마음으로 사자 앞에 사람 앉혀 놓았나?

16 계룡산갑사
익명의 아름다움 혹은 그윽함

계룡산 갑사(甲寺) 부도밭은 푸른 그늘 속에 있습니다. 6월의 숲은 겹도 푸르고 안도 푸릅니다. 릴케가 '장미의 내면'이란 시에서 '어디가 이 속에 대한 박인가?'라고 물었듯이 갑사로 오르는 숲길도 안과 밖의 경계가 없습니다. 착한 것도 악한 것도 생각하지 않는[不善不思惡] 삶을 추구하던 선사들의 체취가 스며 든 부도밭도 안과 밖이 따로 없습니다.

갑사의 부도는 부도밭에도 있고 대적전 앞에도 있고 선방 곁에도 있습니다. 역사속의 스승과 오늘의 후학이 한 공간에서 한 호흡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대적전 앞의 '갑사부도(보물 제257호)'를 배 일하기 위해 일주문에서 오른쪽 계곡길을 따라 걸읍니다. 키가 15m나 되는 철당간(보물 제256호)에 반배를 하고 대숲 우거진 돌계단을 올라서니 커다란 침묵[寂]의 공간이 나타납니다. 화단의 꽃들도 배롱나무의 환절기와 푸른 잎들도 고요 속에 빠져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과 문수와 보현보살님도 반쯤 감은 눈으로 고요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갑사부도는 주인을 알 수 없습니다. 원래 될 뻔 산중에 쓰러져 있던 것을 1917년에 이곳으로 옮겨 모셨습니다. 신라말이나 고려초기에 조성되었을 것 같은 팔각원당형의 기단구조인데, 기단의 조각이 압도적입니다. 비교적 높다란 느낌을 주는 8각의 지대석 위에 3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맨 아래층은 피어하는 연꽃 사이로 안상이 마련됐고 그 안쪽에는 사자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동글동글한 사자의 몸체는 살아 있는 듯한데 특이하게도 한 곳은 사자 앞에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그 사자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거기에 사자가 있는 것이 부도를 수호하는 의미라면 그 사람은 사자를 부리는 신장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부도의 주인이 천지만물의 공양을 받으며 덕화를 베풀 후덕한 스승임을 강조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천여 년 전에 조각을 한 석공의 마음이 어땠는지 알 수 없지만 사자 앞에 사람을 앉혀 돌로써 부도가 더 많은 법문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기단 아래쪽에 구멍을 내어 빗물이 빠져나가게 한 점으로 보아 그 이름 모를 석공은 참으로 주도면밀하고 불심이 그윽했을 것입니다.

부도의 양식은 화순 쌍봉사 철감도윤(798-868) 선사 부도와 비슷해 보입니다. 월강 선사는 구산선문 가운데 사자산문의 조사입니다. 그의 법을 이은 장호 절종(826-900) 스님이 사자산문을 흥룡시켰는데 그의 탐비에는 말년에 공주에 머물렀다는 사실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는 갑사부도의 주인이 장호 절종 스님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록이 없으니 짐작은 짐작일 뿐 익명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음 순례지는 진료절종



기단부의 조각이 매우 선명한 갑사부도(큰사자)와 앙상에 새겨진 사자와 사람의 모습(오른쪽 아래). 석종형이 대부분인 부도밭 전경



‘갑사부도’ 지대석 조각솜씨 결국 수법 뛰어나

크기 비슷한 부도들 선방 같은 분위기... 탐비는 하나도 없어

무문관 수행 일으킨 정영 스님 부도 ‘단아한 모습’

스님의 부도가 있는 흥녕선원. 영월 법흥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익명(匿名)의 의도적이든 뜻하지 않았든 부도에는 이름을 모른다는 것이 주는 아름다움도 있습니다. 세세하게 전하지 않는 역사가 한 덩어리의 부도로 묻혀져 바람의 커를 휘감고 있으니 드러나지 않은 아름다움을 읽기 위해서는 나그네가 먼저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도밭 기행은 그 자체가 하나의 수행이기도 한 것입니다.

갑사부도의 익명성은 주인을 알 수 없는 탐에서 풍겨져 나오는 가르침과 그토록 공력을 들여 조탑(造塔)을 한 조각가의 마음을 읽으려는 구도적 노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갑사 경내에 있는 또 하나의 부도는 선원 옆에 있습니다. 대웅전과 삼성각을

지나 선원으로 가는 길은 '통행금지'입니다. 여름안개에 든 선원은 외부인의 발길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가보고 싶은 마음이 앞섰지만, 흑여 결계대중의 정진에 방해가 되면 그 또한 막중한 업보가 될 것 같아 발길을 표충원으로 돌립니다.

표충원은 청허휴정과 사명유정 그리고 기허영규 대사의 진영이 중심입니다. 이 고승들은 잘 알려진 대로 임진왜란의 영웅들입니다. 공주 계룡면 월암리 출신인 영규대사는 청허 스님의 제자로 19세에 출가했습니다. 본분사를 구하는 일에 남다른 정열을 기울이다가 전장이 일어나자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승병을 모집해 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주로 충청지역에서 활약하며 청주성 탈환 전투에 승리하고 육천지역

에서도 전과를 올립니다. 금산에서 고경명 조헌 장군과 함께 치열한 전투를 벌이다가 유산에서 장렬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른바 700의총이 형성되는 결전의 현장에서 군사들을 독려하며 적들을 대항하는 영규대사의 모습을 그려보다가 전쟁은 과거만의 일이 아니라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 집니다.

비록 수행자의 신분이었으나 풍전등화의 조국을 위해 창검을 마다하지 않았고 목숨을 던졌으니 왕이 감응하여 '진위장군'으로 추봉했습니다. 스님의 법구는 절집의 화장법을 따르지 않고 매장 하였는데 무덤은 계룡면 유평리에 있습니다. 1810년에 세운 묘비가 있으니 탐비를 대신한다 하겠습니까. 표충원 마당에도 1973년에 세운 '승병장영규대사사적비'가 있는데 정인보 선생이 지은 글이 사투리 장중하고 웅혼합니다.

표충원 아래쪽에 자연석을 기단삼아 세운 갑사사적비가 있고 그 아래 그윽한 숲 그늘에 부도밭이 있습니다. 모두 18기의 부도가 동그렇게 배치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석종형입니다. 현은당 부도와 낙서당 부도는 각각 1657년과 1815년으로 연대가 밝혀집니다. 대산당 충허당 함황당 용월당 청심당 등의 명문은 흐릿하게나마 밝혀지지만 그들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 없습니다. 이 푸른 숲 그늘 속의 부도밭도 익명의 아름다움

혹은 그윽함에 잠겨 있습니다. 이끼 묻은 석종들이 어깨를 맞대고 앉아 바람이 실어 주는 목경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마침 초하루 법회가 열리는 날이라 스님의 우렁찬 <천수경> 경문이 도량 가득합니다.

갑사 부도밭은 부도들의 크기가 모두 엇비슷해 보기 좋습니다. 지나치게 큰 부도가 위용을 떨침으로 주변의 작은 부도들이 위축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안목에 크고 작음의 분별이 붙어 있어서 그런 것이지만 법은 크고 작음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비슷한 크기로 도열해 있는 부도는 크고 작음을 분별하는 중생심을 잠재워 줍니다. 오래된 석종들 사이에 키를 알맞게 맞추고 조용히 자리한 새 부도 하나가 눈길을 당깁니다.

영파당(靈波堂) 정영(靜映) 스님의 부도입니다. 2007년 12월 24일 입적한 정영 스님은 현대 한국불교에 큰 족적을 남긴 분입니다. 무문관 수행의 새 길을 닦은 스님입니다. 정영 스님은 1964년 동봉산 천축사에 무문관을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1993년에는 계룡산 대자암에 무문관을 열었고 재가자를 위한 무문관도 열어 수행불교의 새로운 틀을 제공했습니다.

문 없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수행. 기간을 정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작은 구멍으로 간소한 공양물만 받아 주림을 극복합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수행입니다. 자기를 버린 곳에서 더 철저한 정진력으로 자기를 관리해야 합니다. 높고 싶은 마음의 향복을 받아야 하고 자고 싶은 마음을 이겨내야 합니다. 화두를 놓치지 않기 위해 일체의 잡념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무문관 수행은 자기를 죽여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닫힌 문을 박차고 나와 텅실텅실 춤추며 오도송을 부를 수 있을 때까지 자기를 없애는 수행입니다.

정영 스님이 개설한 천축사 무문관은 지금 시설의 노후로 인해 운영되지 못하고 있지만, 대자암 무문관에서는 오늘날 승가와 재가 남자들이 푸른 눈으로 정진하고 있습니다. 정영 스님의 부도는 또 다른 모습의 무문관인 부도밭에서 단아한 모습으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 갑사 부도밭은 선방 분위기를 드러냅니다. 타원형으로 동그렇게 앉아 있는 모습이 멀리서 보면 수좌들이 정진하는 풍경과 흡사합니다.

참이거니 거짓이거니 의논하지 말게 만사는 처음부터 밝고 같은 것이 암주(庵主) 어디로 가느냐고 묻지 말게나 통활(通活)한 하늘에 눈달이 잠기네!
(정영 스님의 열반송)

정영 스님 부도 곁에는 아직 탐비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문도들이 이 열반송을 담아 비를 세우겠지만, 정영 스님의 부도가 거기 '익명의 선방'에 자리하고 있음으로 갑사의 역사는 더욱 깊어 집니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천년동안 중생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고 계신 은진미륵 (보물 제 218호)

미륵성지 기도영험도량

은진미륵 관측사로 초대합니다

일천년 동안 한 곳에 서서, 수많은 중생들을 안아준 은진미륵!

은진미륵은 서기988년 조성을 시작하여 장장 38년간 불사를 진행, 서기1006년(목종 9년) 완성하였는데 찬란한 서기가 삼철일 동안 천지에 가득하여 찾아오는 사람으로 저자거리로 이를 만큼 북적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은진미륵의 백호에서 나오는 황금빛이 너무 밝아 송나라의 지안대사가 빛을 따라 찾아와 예배하고 "마치 훗날을 보는 것 같이 밝다는 미륵불이구나!"하고 감탄했다하여 사찰 이름이 관측사(灌燭寺)로 명명됐다고(관측사사적비명)는 적고 있습니다.

기축년 윤달 생전 예수재 및 성지순례 안내

생전 예수재의 내력과 원력

부처님의 대공덕주인 '법비사라' 왕은 명부를 제함한 후에 다시 깨어나 전생을 참회하고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생전 예수재를 무려 59번이나 열어 그 공덕으로 도솔천에 환생하였다고 합니다. 중국 양무제 역시 매년 봉행하여 인연도리를 널리 알렸다고 합니다. 이에 관측사에서 생전 예수재 및 가사 불사를 봉행코저 하오니 나와 조상 그리고 자손만대로 이어지는 업장소멸과 극락왕생의 발원이 담긴 생전 예수재와 가사불사를 통해 전생, 금생 인연 법문을 듣고 이 목숨 다 할 때까지 수행하겠다는 원력을 세우시고 기피 입도시길 바랍니다.

■ 생전 예수재

- 기도입재 : 2009년 6월 5일 (음, 5월 13일) / 천도재 봉행 : 매주 목요일 대웅보전 오전 10시 30분
- 기도회향 : 2009년 7월 23일 (음, 6월 2일) / 동참금 : 예수재 1인 5만원 / 가사불사 성의껏 동참

■ 성지순례

- 일 정 : 2009년 6월 30일 (음 5월 8일) / · 순례사찰 : 화엄사, 천은사, 연곡사
- 출발장소 : 관측사 주차장 오전 7시 / · 동 점 금 : 1인 3만원 (점심 제공)
- 입금계좌 : 우체국 310086-01-000089 / 국민은행 453201-04-164635 (예금주 : 관측사)

■ 1029일 영가 천도 12번째 회향

- 기도일정 : 2009년 6월 7일 (음, 5월 15일)

■ 2009년 수능 100일 기도 입재

- 2009년 8월 4일 (음, 6월 14일)

* 관측사 은진미륵 부처님께 좋은 성적 성취 발원 수능 기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많은 대중스님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축원 및 기도 봉행합니다.

